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3월 2일, 16일, 30일 649,000원  
야호투어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 (02) 725-7595 / FAX: (02) 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 “열쇠는 정부에... ‘약속’ 지켜라”

1월 21일 자취 감취 긴장·우려 속 각 단체 결속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대안제시 촉구 이어져

### 조계종, 1주일간 ‘참회 발원 정진기도’ 봉행

지을 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 1월 28일 현재 단식 94일째로 접어들면서 지을 스님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만일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을 스님은 1월 20일 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정부의 대책만이 단식을 푸는 열쇠임을 못 박았다. 다음날인 21일 지을 스님은 행방을 감춘 채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불교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지을 스님의 신상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렇게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정부의 대책제시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천성산 관동터널 백지화 공약을 정부가 어겨서 생긴 문제만큼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을 스님이 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정부 대책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도농농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김범열 부위원장도 “지을 스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부당국이 하루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을 스님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후퇴한’ 내용을 제시했다면 정부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지을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정부가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참회해야 한다”며 사회전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도 “정부는 천성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월 24일부터 지을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문규현 신부와 성공회 신학교도 신기호 신부,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 또한 “정부도 지을 스님이 보여준 생명사랑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불교포럼, 대불정, 대불림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생명을 통해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각계각층이 정부의



지을 스님과 자연환경을 위한 참회발원 기도정진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지원)는 1월 27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원 도법 지원 세영 진관 스님, 사진·박재관 기자

결단을 추구하고 나서면서 조계종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은 1월 27일부터 조계사에서 일주일간 “지을 스님과 자연환경을 위한 참회발원 정진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기도정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지을 스님의 고행은 뜻생명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 원죄와 신뢰,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먼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지을 스님의 소속사찰인 천성산 내원사 주지 혜등 스님도 “지을 스님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한몸 한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다”며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는 우리사회와 국가도 지을 스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지진·해일로 숨진 남아시아인들을 위한 공동추모제를 추진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웅)는 1월 27-28일 이틀간 열린 ‘제5회 종단교역자대화캠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실무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모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 남아시아 위한 공동추모제 연다

###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고아원 건립도 결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또 스페인지역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구호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대화캠프에서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활동에 대한 각 종교현황보고와 토론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앞서 기초강연에서 스리랑카 지역지역을 다녀온 백도웅 대표회장은 스리랑카 불교대학원장 다마스리 스님을 만나 고아들을 위한 그룹을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日 매장 징용자 유골 모셔온다

###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6월 1차 송환기로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일본 땅에 항구적으로 매장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유해봉송작업에 적극 나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서울 하림각에서 총회를 갖고 6월경 1차로 한국인 징용자의 유해를 송환기로 결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종진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8-12일 일본 가나자와현 가마쿠라시 고메이지(光明寺) 등지에서 열린 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양국 불교계가 결의한 대로 올해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봉환할 것”이라며 “이는 이미 한일 정부는 물론 태평양전쟁 유가족 단체와도 얘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한국인 징용자 무연고 유골봉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도쿄(東京) 유엔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유골 1천136위 가운데 남한출신 705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봉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덕사에서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26차 한일불교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또 협회는 한일 여성불교인 전통문화교류행사도 10월경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동산불교대 ‘대학원대학’ 추진

### 2월에 추진위 구성

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를 발족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현재 교육부 대학원대학 설립 인준 요건인 건평 200평이상 건물소유, 전임교수 3인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모금을 통해 운영자금 15억원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경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할’  
만약 여러분이 돌을 13년이 아니라 1년을 수도한다면...  
가끔 여러분도 성사를 벗어내고 살지 않으신 니까?  
그림 · 조태호  
지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아이벳’으로 만나는 - 불자들의 유비쿼터스 세상

아이벳의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1월 31일부터 뉴스·법문 등 실시간 서비스 개시

- 뉴스 불교계의 다양한 기사가 종합, 신화,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실시간 제공.
- 법문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
- 교양대학 영상과 문자를 통해 집에서 전국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청취.
- 사이버 법당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 경전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
- 엔터테인먼트 찬불가, 주발정보, 불교계 일정 등이 상세히 제공되며
-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재미 거리를 제공.
- E-Book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사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한눈에.
- 커뮤니티 아이벳 단말기의 필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향후 사이버기자,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 불교문화상 온라인 불교 소평물인 마하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교 문화상품들의 정보 제공.

단행본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명까지만 특별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벳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 아이벳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로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특별 보급가 (사은품 1GB SD메모리카드 증정)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 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벳(484,000원)

http://ibud.buddhapia.com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벳(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